

##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3차 실연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 4월 23일(목)
- 회의장소 :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경아, 손수연, 안경모, 최상호, 최우정, 임기현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공연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공연예술 가운데 창작 오페라 분야를 지원하여 신작을 발굴하는 것은, 보편적 음악 언어를 통해 우리 시대 한국인의 정서와 모습이 재현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올해의 신작 후보 중, 2025년에 실연 심의 지원작으로 선정한 2개 작품과 같은 해 대본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작품, 총 7개 작품에 대한 3차 실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올해의 신작(후보) 실연 심의의 기준은 작품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계획의 공공성(10%), 관객 평가(20%)입니다. 이번 실연은 기본적으로 낭독 형식으로 공연됐으며, 반주 부인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수에도 제한을 두어 최대한 동일한 조건 안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60분간의 실연 이후, 핵심 창, 제작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수행하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심의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작품의 창의성 및 독창성 및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타당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작오페라를 육성, 발전시키려는 사업인 만큼 실연의 결과가 전차 심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였는지, 본 공연으로 발전할 경우, 예술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지에도 주목했습니다.

현대 한국 오페라를 우리는 '창작오페라'라고 지칭합니다. 이미 창작물인 오페라에 다시 한번 '창작'이란 이름을 붙이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오페라와 구분되는 우리 오페라는 창작오페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한국 창작오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되짚었습니다. 소재와 주제, 대본과 음악적 구성, 창작 인력, 제작 시스템 등에서 우리 오페라만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하게 찾고자 한 것은 지속가능성입니다. 한국 창작오페라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특징을 꼽아보라면 레퍼토리화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오페라 생태계에 창작오페라가 재공연이 되는 구조와 풍토의 조성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분야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의에서는 작품이 본공연으로 무대화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연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살폈습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참신한 기획을 선보인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음악적인 양식 또한 음악과 드라마의 결합이라는 대전제 아래, 전통적인 오페라와 뮤지컬, 음악극 사이의 탈경계가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고도 판단합니다. 다만 후보작들의 소재와 주제가 다채로웠던 것에 비해, 음악에서 그것이 일관되게 드러나지 않았던 점은 공통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연될 오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극적 맥락과 더불어 음악적 일관성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2026년의 한국 창작오페라 신작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은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 완성된 오페라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땀과 역량이 집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하루가 다른 이 시대에 오페라를 공들여 창작하고 공연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돌이켜봅니다. 이번 심의 기간 내내 그 의미를 담은 작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들이 앞으로 오랜 시간 관객과 공명하는 오페라로 우리 곁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위원 일동